

“일곡지구 매립 쓰레기, 광주시가 책임져라”

25년전 택지개발 당시 문헌 15만t 제2·3근린공원서 불거져 8개 구역 63만t 매립 의혹도 주민연대 시청앞서 강력 촉구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광주시는 공식성이 담보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곡동 불법 매립쓰레기는 지난해 12월 일곡동 3근린공원 부지에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7m 높이의 쓰레기 산이 발견된 것이다.

광주시 조사결과, 매립쓰레기는 제2근린공원 9만t, 제3근린공원 6만t 등 총 15만t 규모로 파악됐다. 해당 쓰레기는 옛 생활폐기물 매립장소(41만2000㎡ 규모)였던 일곡동 일대에 1990년 초 매립된 생활폐기물이다.

1989년 일곡동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광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는 매립 쓰레기를 복구 운동장 매립장으로 반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시의 쓰레기량 계산 착오로 운동장 매립장에 전량을 수용하지 못했다. 결국 LH는 현재 제2·제3근린공원 부지에 남은 쓰레기를 재매립했다.

이 문제는 지난 1994년 택지지구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면서도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1996년 북구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LH의 불법 매립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보고서에서 “주민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매립 쓰레기 전량을 운동장 매립장으로 반출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전액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LH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택지지구 공사를 진행했고, 광주시도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제3근린공원은 물론 일곡동 곳곳에 쓰레기가 묻혀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재섭 북구위원은 지난달 2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곡지구 내 8개 구역에 63만t 규모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북구의회 보고서 발표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다”며 “광주시는 ‘관련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되풀이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주민모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용섭 광주시장실을 찾아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쓰레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화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헌혈행사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한 헌혈행사가 지난 30일 광주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구청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빠’ 출산휴가 3일서 10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존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확대됐

다. 출산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이번 개정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기간에는 최대 1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간 사용가능하다. 또 하루 2-5시간 사용 가능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단축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한편 올 8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불법 광고 1133건 적발

식약처,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과·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이었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명시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 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달뜨기 08:56
해질 18:17 달질 20:14

우산 챙기세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남해안부터 비 시작되겠다.

| | | |
|-----|--------|-------|
| 광주 | 흐리고한때비 | 20/26 |
| 보성 | 흐리고한때비 | 19/24 |
| 목포 | 흐리고한때비 | 21/25 |
| 순천 | 흐리고한때비 | 21/26 |
| 여수 | 흐리고한때비 | 21/24 |
| 영광 | 흐리고한때비 | 19/26 |
| 나주 | 흐리고한때비 | 20/25 |
| 진도 | 흐리고한때비 | 20/25 |
| 완도 | 흐리고한때비 | 21/25 |
| 전주 | 흐리고한때비 | 20/26 |
| 구례 | 흐리고한때비 | 20/25 |
| 군산 | 흐리고한때비 | 19/25 |
| 강진 | 흐리고한때비 | 21/25 |
| 남원 | 흐리고한때비 | 19/26 |
| 해남 | 흐리고한때비 | 19/26 |
| 홍산도 | 흐리고한때비 | 20/25 |
| 장성 | 흐리고한때비 | 19/25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 앞바다 | 북동~동 | 0.5~1.0 | 북동~동 | 1.0~2.0 |
| 남부 앞바다 | 북동~동 | 1.0~2.0 | 북동~동 | 2.0~4.0 |
| 남해 앞바다 | 북동~동 | 0.5~1.0 | 북동~동 | 1.0~2.0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북동~동 | 1.0~2.0 | 북동~동 | 1.5~3.0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북동~동 | 1.0~2.0 | 동~남동 | 2.0~3.0 |

◇ 생활지수

| | |
|----|---|
| 위험 | ☔ |
| 보통 | ☀ |
| 보통 | 👁 |

◇ 물때

| 목포 | 간조 | | 만조 | |
|----|-------|-------|-------|-------|
| | 08:54 | 21:16 | 03:46 | 16:13 |
| 여수 | 간조 | | 만조 | |
| | 04:17 | 16:44 | 10:46 | 22:57 |

◇ 주간 날씨

| 2(수) | 3(목) | 4(금) | 5(토) | 6(일) | 7(월) | 8(화) |
|-------|-------|-------|-------|-------|-------|-------|
| ☁ | ☁ | ☁ | ☁ | ☁ | ☁ | ☁ |
| 21/25 | 21/25 | 17/26 | 16/24 | 15/23 | 14/22 | 14/23 |

9월 모의평가 국어·영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 국어는 쉬웠으나, 수학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 139점, 수학 가형 135점, 수학 나형 142점이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해 2019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국어 최고점은 11점 하락했고, 수학 가형은 2점, 수학 나형은 3점 올랐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과 2등급이 나누는 등급구분 표준점수(1등급 커트라인)는 국어 130점, 수학 가형

128점, 수학 나형 133점이었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2점 떨어졌으나, 수학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최고점자(만점자) 비율(0.12%)도 지난해 수능(0.03%)보다 는 늘어났다. 수학 가형은 0.02% 감소한 0.37%, 나형은 0.05% 줄어든 0.19%였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 비율이 5.88%였다. 지난해 수능 1등급이 5.30%였던 것과 비교해 조금 쉬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신규교사 135명 위탁채용

전남도교육청이 23개 사립학교 법인의 신규 교사 135명을 위탁 채용한다. 사립학교 위탁 채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지역 23개 사립학교 법인 산하 35개 학교로부터 2020 학년도 교사 신규임용 1차 시험을 위탁 받아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위탁 채용 규모는 23개 법인 22개 과목 교사 135명(초등교사 2명·중등교사

133명)이다. 지원자들은 1, 2순위에 공립 또는 사립만 지원하거나 공·사립을 섞어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1차 시험을 통해 선발인원의 3~5배수를 선발해 학교법인에 통보하고, 해당 법인은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